

<지장본풀이>

- 일시 : 2018. 08. 18

지장본풀이 허겠습니다. 지장본풀이야 뭐, 선생님 네가 다 알겠지만은 시리떡 처내영 막 도 전허영 잘르고, 카타행, 갈라 먹고 허는 게 지장본이다. 이게 지장본도 조금 남군 광 북군이 약간 틀립니다 예. 이것도 예. 그런 것도 참작해주시고 경 험서 예.

지장이 아기씨 난산국 본산국 신풀어 올립네다. 므른 떡 먹영 이제도 목에영 권주권잔 진청 주 청감주로 잔 지올립네다.

지장아, 지장아, 지장이 아기씨, 어디야 본인고. 남산국 본이여. 여산국 본이여. 남산광 여산 은 애기가 없어서 무으상 허더라. 동계남 상저절 서계남 은중절 남계남 농농절 북하산은 미 아 안동 절에 천수륙 드리난에 지장이 아기씨 소로롱 솔짝 새숫아 납네다.

흔 설이 나는 해 어머니 무릅에 연주세 허는고, 두 설이 나는 해 아버지 무릅에 연주세 허는고 세 설이 나는 해 할마님 무릅에 온조세 허는고 네 설이 나는 해 하르바님 무릅에 온조 세 허는고 다섯 설 나는 해 어머니 여윈다. 으섯 설 나는 해 아버지 여윈다. 일곱 설 나는 해 할마님 여윈다. 으답 설 나는 해 하르바님 여윈다. 어딜로 가리오. 웨삼춘 집으로 수양을 갑네다. 설우신 웨삼춘 개 먹던 접시에 술랍을 달렌다.

죽으랑 허고선, 삼도전 거리에 던져사 가는고. 하늘이 아기씨 흔 놀개 끌아간다. 흔 놀개 뒤 어가니 하늘이 옷 주고 지하가 밥 주고 이런 송 저런 송 열다섯 십오세 넘으니 착허다 소문 이 동서로 납네다. 스주가 오는고 스주도 좋더라. 신랑이 오는고 신부가 가는고 가는날 저 녁이 생남자 보는고.

남인 가정 어여사 가는고, 어딜로 가리오. 시누이 방으로 이 밤을 나난에 시누이 나 뜰넌 흔 지방 넘으난, 베틀이 닳뒀어. 두 지방 넘으난에 니가 닳뒀어. 잡을 말 허는고, 죽일 말 허는고,

“나 년이 팔즈야, 나 년이 스주야. 어딜로 가리오.”

삼도전 거리로 주천강 연혜못디 연서답 가는고, 가단보니, 절간범당 중이대스 느립네다. 대 스님, 소스님 조그만 애기씨광 예속을 제긴다.

“나 팔즈 클립서, 나 스주 클립서.”

스주역을 들러반양 초장 이장 제삼장을 견영

“초부는 좋아도, 중부는 굿수다. 중부는 굿어도 말부는 좋수다. 남인 가정 시아방 시어명, 원아방 원어명 초세남 올립서. 이세남 올립서. 전세남 올립서.”

우올려 간다. 연풍낭 심는고, 누에 밥 맥인다. 누에 즈 제운다. 썰이랑 뽑아다근 물멧지 동 앓언 갱멧지 동앓언 세미녕 세마패 고리비단 능하비여 지어도 가는고.

초감제 드리로, 신맛이 드리로, 초이공 드리로, 할마님에 불도 드리, 성군님에 칠성 드리, 끊 어사 가는고. 분향으론 훗일곱자 동자치 석자오치 풀찌거리 끊어사 가는고. 문전보시 세경 자치 끊어사 가는고. 대시왕에 청비게 백비게 시왕 대드리 끊어사 가는고. 불쌍헌 영혼님네 처서 영계드리 눈물 수건 뚝 수건도 끊어사 가는고. 끊다가 나머진 훗일곱자 지포찰리 아강 베포 웨우노다 들렁 메어간다. 흙동녕 허는고, 대가령 허는고. 내난 가위 불산가위 각리각리 촌촌 웨로 받을 딴 흙으로 받으멍 대가령 말가령 험네다. 쓸이랑 싯저당 등가사 가는고, 흰

물을 돌른다. 설대야 구덕에 건져야 가고. 도에낭 방에에, 굴목낭 방에에. 이어도 방에, 지어도 방에. 디리 콩콩 내 콩콩 지어사 가고.

내어당 체할망 들이라. 체 아랫 ㄱ루는 즈질도 즈질다. 체 우잇 ㄱ루는 훝음도 훝더라. 체 아래 ㄱ루는 짓너븐 다라에 물즙아 놓고 동네에 비발년도 다 모다들라. 풀 심도 들이라, 밍도 밀라.

초감제 제물로 신맛이 제물로 초이공 제물로 할마님 불도 제물, 대시왕 제물로 우올려 간다. 체 우이 ㄱ루는 훝음도 훝더라. 대국서 들어온 열두방 금시리에 허위여 담는고. 아야도 고에여. 아야도 고에여. 시루랑 내려당 대시왕에 도올려 가고. 상고망 툐라단 동계할망 좌우도계 동계할망 지삭여 가고. 우올려두고, 적도전 내어당 각발분식 직여사 가고. 지장이 아기씨 열두푹 단치메 족족이 보려단 제 인정 거난에 착험도 착허다. 새폼에 나는고. 하늘엔 부영새, 영락엔 호박새, 천지엔 마늘새, 안땅에 노념새, 밧땅에 시념새, 총덜기 알롱새, 밥주리 옥은새 물녕을 빠는 새 물 주멍 드리자. 쓸념을 빠는 새 쓸 주멍 드리자.

주어라 훝~쭈!, 훝~쭈!, 훝쭈! 짓놀아 가고. 이 지장은 어느 누게에 일화 지장. 성은 아무가이 나인 멧 설 먹을 년 입을 년 일화 지장. 남단북단 너른 밧 고대광실 너른 집 일화 지장. 안 노적 밧 노적 거리 노적 일화 지장.

직장 허는 즈순덜 진급 시험 일화 지장. 공무원 시험 일화 지장. 차, 배 타는 애기영, 저 바당에 물질허는 즈순덜랑 망사리가 ㄱ득게 대전복 소전복 일화 지장. 멩과 복은 스만이 목숨 일화 지장. 허읍네다. 이간정중 안네에 편안 건강허게 일화 지장.

오늘 이 즈순덜 몬 오랑 이 연구허멍 앞으로 잘뉘게 험서 일화 지장. 큰긋 십삼호 몸을 받은 일화 지장입네다.

봄 고사리 밧디 은하가 당천헌다. 열러 맞으라. 즈진 은하가 당천허니 오늘 삼지시하군병이 일화온다. 혼합시에 군병이로구나. 계벽시에 군병이로구나. 천양베포 시절에 지왕베포 시절에 인왕베포 시절에 산왕 국베포 시절에 이런 군병이 올라온다. 육이오 사변 때에 대동아 전장 무자기축 년에 받은 군병이 올라온다. 동설룡에 서설룡에 남설룡에 큰낭지기 큰돌지기 덜 군병질이 올라온다. 오름지기 동산지기 냇골지기 엉덕지기 술덕지기 굴렁지기 이런 군병이 올라온다. 그 뒤 후로는, 천련드니 천련지어 만련들어 만련지어 어총지기 비총지기 선산지기 군병질이 올라온다. 옛날 쉼 잡아난 거무영청 놀던 이런 군병질이 올라온다. 알로 느려 요왕군병 선왕군병이로구나. 아끈여나 숨은여나 뒷여 밧여 정살여, 오늘 이 자순덜 오랑 가는 질에다 손자치에 밧자치에 뜨라들던 임질은 군병질이로구나.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 방이로구나. 갑자을축병인정묘무진기사경오신미임신계유갑술을해 육십갑자 단마치에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 방이 놀던 이런 군병질이 올라온다. 오늘 이 사라봉 묘충사 안내 이런 군병질이 올라온다. 창급도 털라. 메급도 털라. 꼴단지여 열단지여, 돈 그린 군병이랑 돈을 주곡, 천 그린 군병이랑 천을 주곡, 떡, 밥, 술, 레기로 저 올레로 일천군병, 삼천군병 저 올레로 많이 주잔입네다. 주잔 드러가며 상당은 물, 오늘 난수생 신수생 신폴어 올렸습네다 예.